

| |
|----------------------------|
| 오전(1부, 노량진) 6시 |
| 오전(2부) 7시 |
| 오전(3부) 10시 |
| 오후(4부) 3시 |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
| 서울 교회 02)533-9191 |
|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1월 11일 (제 1340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통 우 컬럼

나에겐 꿈이 있다

새해,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죽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29:18)고 말씀하셨다. 맞다. 꿈꾸는 자는 늙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꿈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데 못 이뤘는가? 이는 ‘산삼을 캐겠다’는 꿈을 꾸고 도라지에 맘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범을 쫓다 여우에 유혹되는 자들이 참 많다. 그러다 총 맞는다. 꿈을 꿨으면, 즉 목표를 설정했으면 귀는 막고 눈만 뜬 채, 전쟁에는 2등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풋대를 향해 달려라.

운전면허증이 갱신할 때가 되니 주위 사람들이 내게, “80이 다되어 가시니 이참에 면허증을 반납하세요.” 한다. 그러나 나는 면허증을 갱신했다. 나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곧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면 그때는 자율주행차로 나 혼자서도 척척 일을 보러 다니리라는 꿈이 내게 있다.

나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협통하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해보자’고 새해 슬로건을 정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모세가 하나님께, 생명록에서 자기의 이름을 제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간구했는데, 내가 딱 그 심정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육체가 기름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나에게는 꿈이 더 있다. 세계를 예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남은 생애도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는 3월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중남미 만여 명의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이 꿈을 향해 달릴 것이다. 이 빨결은 언젠가 김일성광장을 넘어 중국 천안문광장까지 도달하리란 꿈이 나를 격동케 한다.

그리고 올해 멋진 성전을 완공하는 꿈도 있다. 서울성전 건축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꿈을 매일꾼다. 그 꿈이 나를 미소 짓게 한다. 80이 가까운 나도 이렇게 꿈을 꾸는데, 당신은 왜 꿈을 꾸지 않는가? 꿈을 가져라.

온유(溫柔)한 자가 되어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 첫 주일예배를 통하여 새해 슬로건,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해보자’를 이루려면, 즉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지기를 원하면, 단연컨대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범이니 집안에서부터 온유하란 말씀이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충만해지면, 우리 본성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사람의 모습을 보이지만, 기도가 녹슬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져 성령을 소멸하

(롬8:5~6). 내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병든 영혼’이라고 외치는 이유다. 항상 기도에 힘써 성령충만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모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쳐단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젊은 시절, 동네 어르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공무원을 참지 못하고 구타로 응징할 만큼 혈기가 가득 했었다는 간증을 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며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12:3).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

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사연을 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실뿐 아니라 볼을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며, 정말 가족이요,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정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옛날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며 혈기 가득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모세,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자는 하나님의 크신 분노를 잠재울 만큼 모세의 동족에 대한 사랑과 온유함이 극명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출32:9~14).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3).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보다



송구영신예배 광경(2025년 12월 31일 밤 10시, KBS 아레나홀)

게 되면, 누구든지 인간 본성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있다. 사회에 악한 일을 일삼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새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 다시 이전의 죄악을 범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항상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누구나 인간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는가. ‘육신을 죽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죽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던 시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펄펄 뛰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종으로 변모되더니, 후에 고린도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고전13:4~5).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성도들을 일일이 기도해주시는 장면을 모니터로 볼 때마

더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습관처럼 말씀하시죠. “내 한목숨 다 주께 드리겠으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사랑과 온유함은 어찌 보면 한 마음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기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인니까요.

올해는 서울성전 건축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여, 올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2026년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2026년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

- *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28일(수)
- * 대상 : 목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
-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갈5:15~26)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지길 원합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란, 우선 나 자신이요, 그리고 내 가정, 내가 소속된 기업, 교회, 그리고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곳이 기름지길 원한다면 단언컨대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이는 목회 41년 동안 제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것을 토대로 통계 내어 내린 결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옥토에는 자갈이 없다 자갈을 빼내라

저의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 다녀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밭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가서 하는 일은 어른들이 호미로 땅을 파놓으면 거기서 돌을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의문을 갖는 우리들에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은, “옥토가 되어야 결실이 좋단다.”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땅이 돌짝밭이면 열매가 부실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얇은 돌밭에 뿌리면 씩이 나오나 해가 돋으면 타서 말랐고, 가시밭기 위에 뿌리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흑백배, 흑육십 배, 흑삼십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심령에 떨어지느냐를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만, 실제로도 좋은 땅이어야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어떤 땅이 옥토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것처럼 돌을 거둬내야 좋은 땅, 옥토가 됩니다. 마음속의 자갈, 잡초를 걷어내야 옥토가 되어 땅이 기름지게 되고 결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갈, 잡초가 됩니까? 그중 하나가 혈기와 다투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을 앞두고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길, 그래서 넉넉하여 남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제게 ‘온유한 자가 잘 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란 마음속에 자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육축과 금은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조카 롯도 상당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재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

이 시작됩니다. 한정된 땅에서 많은 가축을 기르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놓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리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될 것을 아는지라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13:8~9). 다투지 않기 위해 갈라서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싸우면서 굳이 같이 살고, 서로 으

르릉거리면서도 함께

사업하는 자들

이 있습니다

다. 그

가

정

이
나
기
업이
잘
될까요? 그
럴
리가
없습니
다. 다툼의
씨앗을
미리
제거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세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우물을 파는 이삭에 대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면서 아브라함이 팔던 우물을 다시 파서 샘이 나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고 순순히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팔는데 또 다툼이 나자 그 우물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옮겨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팔으니, 이는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는 뜻으로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다투지 않은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투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인なり”(잠17:14) 하셨거든요. 지난 달에 스페인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집이며 자동차, 사업터며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망과 실종자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홍수가 나면 넘는 게 없습니다.

다툼이 이와 같습니다. 방축에서 물이 조금 새는 걸 우습게 보면 큰코다칩니다. ‘부부간에 다툼 수도 있지, 노사가 맘에 안 맞으면 싸울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게 아닙니다. 그러다 새는 물 때문에 구멍이 더 커지고, 그러다 둑이 무너져버리면 썩 쓸어갑니다. 그간 애써 가꾼 가정, 기업, 교회, 국가도 쓸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툼

이 일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그려면 내
가 먼저
온 유
한
자

가
되
어
야
합니
다.
상대가
내 오
른뺨을
치면
왼뺨
까지
내밀며
“아직
화

가 안 풀렸니? 이쪽도 먼저 때려라.” 해야 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지고 하면 “미쳤나?” 그러지 말고, “어디 오리로 만족되겠니? 십리 가자.” 하고, 내 속옷을 가져가면 “세트다. 겉옷도 가져가라.”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5:39~41). 상대가 싸움하려고 작정해도 절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요? No! 손 크신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시37:8~11).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갈5:15).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계’인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그것을 잡아 바구

니에 담으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마리 이상만 넣어놓으면 절대 못 도망간답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서로 물고 물어서 절대 바구니 높이를 넘을 수 없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물고 늘어지니 다 도망 못해서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전3:16~18).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매일 싸움판이라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부모가 계신 집에서 부부가 매일 싸우면 부모가 ‘내가 나가든지 너네가 나가든지 해라.’ 하실 것 아닙니까? 매일 싸우는 곳에 성령이 거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갈5:19~21).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싸우면 공멸이다

사도 바울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딪칠 때가 많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마음속의 자갈을 빼내더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장(章)을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에 싸움이 없고, 사랑은 온유한 것 이기에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기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기에 다투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기에 싸움이 일지 않습니다(고전13:4~7).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요13:34). 파도가 물려올 때 바위는 맞받아치니까 서로 상처를 내지만, 모래는 물려오는 파도를 다 받아주니 성난 파도가 잡잡니다. 내가 모래가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참아주고, 먼저 사랑합시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싸우면 어부지리(漁父之利)하는 놈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 돌을 뽑아내고 옥토가 됩니다. 거기에 성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풍요의 열매, 건강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온유한 자가 되어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지게 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2026, 새해를 맞아 예수중심교단 선교사들의 신년사를 듣는다

우리가 남미를 차지하기까지



사랑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멀리 남미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2025년을 무사히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5년 전 남미 땅에, 남미 복음의 시장에 남미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원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정말 많은 광고와 집회로 쓴나미처럼 남미를 누볐죠. 그때 저는 스페인어도 능통하게 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사도 이초석이라는 남미에 새로운 신상품을 성령의 역사 비디오와 함께 남미 전시장에 소개했을 때의 막막했던 25년 전을 생각해봅니다.

각 나라 목사님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되면 연락하고, 아니면 없었던 걸로 하자고 당당하게 큰 소리쳐놓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으로 떨며 기도하고 연락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각 나라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미국 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되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2027년도까지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의 집회가 계획되어있고, 집회 해달라는 아우성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또 3년 후에야 집회 날짜가 잡힐 만큼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미 사람들도 아우성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중심교회 사랑하는 교역자분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이제 사도 이초석 목사님은 신상품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하늘나라의 특상품입니다. 남미에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상에서 예수의 남은 고난을 당신의 육체에 채우시며 가르침을 외치고 계시는 사도 이초석 목사님을 보좌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없이는 오늘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열심히 총회장 목사님을 보좌 잘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기도해주세요.

세요.

25년 전 남미에 전시되었던 많은 전도자들과 부흥사들은 이제 그 이름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사라졌고, 이초석 목사님을 곳곳에서 원하고 찾고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며 만나길 원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중심교회 교역자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 여러분, 총회장 목사님 잘 모시고 새해에도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남미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건강에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힘이 되시고 언덕이 되어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현숙 선교사가 우루과이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루과이에서 이현숙 선교사

기름진 땅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는 한 해가 되자.” 이 슬로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앞의 작은 텃밭입니다. 그 땅은 원래 수영장을 흙으로 메워 만든 곳이어서 처음부터 기름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왔고, 처리 과정도 번거롭고 비

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를 처리하는 대신, 비용도 절감하고 땅을 살펴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텃밭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거름이 되었고 땅은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결국 이 텃밭에서 난 열매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것, 저절로 기름져지지도 않는다는 것, 손을 대는 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로 반응한다는 것을요.

흙이 그러하듯, 하나님도 늘 더 넓은 땅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2024년 시드니 집회에서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이 집회 장소 주변이 예수중심타운이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셨고, 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이후 집회 장소 인근으로 가정들이 이사해 오고, 한 가게를 인수하여 프랜차이즈 식당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그곳은 전대미문의 열매를 맺는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며 한 걸음씩 순종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중심타운으로 선포되었던 교회 인근에 현재 다섯 가구가 정착하게 되었고, 교인 11명과 세 개의 사업장이 그 말씀의 열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자는 그 약속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에는 어떠한 슬로건을 주실까 기다리게 됩니다. 그 슬로건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얻어낸, 그 해를 살아갈 영적 방향이며 삶의 거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슬로건을 그냥 읽고 지나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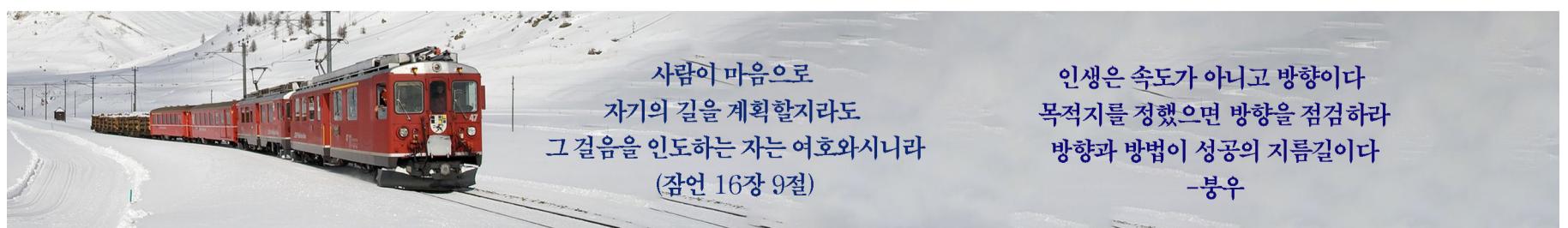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자 애써왔습니다.

“우리,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보자!”에 이어서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2026년의 슬로건이 더욱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지며 기대가 됩니다. 더 넓은 땅을 바라보기 전에, 더 큰 일을 꿈꾸기 전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 기름지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맡기신 그 땅을 말씀과 기도로 일구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통해 더 큰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2026년, 이 슬로건을 믿음으로 불들고 소망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 “Happy New Year!”

시드니 교회 문정훈 목사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신뢰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특별한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여신 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둑인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며 닫힌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천국 열쇠는 사람 앞에서 자랑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이고, 나를 위한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 말씀은 새해를 여는 우리의 다짐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닫힌 문을 더 굳게 잠그는 힘이 아니라 상처와 절망으로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은혜의 열쇠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많은 좌절의 문 앞에서 주저 했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맡기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둑인 것을 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오해를

풀어주고 절망 속에 스스로를 가둔 이들에 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천국 열쇠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능력이며 기적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맡기신 기회의 문입니다. 이 문 앞에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침묵 대신 입을 열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웃과 교회와 교단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교단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2026년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동경 예수중심교회 김장길 목사

주님께 정확하게 꽂혀 연결되는 한 해가 되자



예쁜 휴대폰 케이스를 선물로 받았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예전 것을 버리고 예쁜 케이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날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 충전시키고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충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예쁜 케이스에 걸려서 완전히 꽂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꽂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전기는 계속 흘러왔는데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전기를 받지 못하고 충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믿음 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기는 계속 흐르고 있지만,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쓸 수 없었던 휴대폰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며 구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올바로 연결되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나를 봉사도 하고, 나를 헌금도 하고, 그래서 잘 꽂힌 줄 알았는데, 충전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충전되는 것처럼 보였고, 잘 꽂힌 것처럼 보였고, 믿

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로 연결되어있는 자만이, 올바로 잘 꽂힌 자만이 잘 충전된 핸드폰처럼 아무 때고 주님과 대화하며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이 충전되어있지 않으면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충전이 조금 밖에 없거나 잘 안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님과의 충전은 어떠신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과 불편함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좋아도 핸드폰 케이스로 인해 충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잘 꽂히고 잘 연결됨이 중요합니다. 보기 좋게 보이고 예뻐 보이는 세상의 히영심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 씻어야 합니다. 우리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즉시 눈물이 분비되듯이, 영혼을 더럽히는 죄가 침투하면 즉시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그 눈물이 거룩한 자양분이 돼서 주님께 확실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는 새해는 주님께 잘 꽂히고 연결된 자로서 1년 365일을 새날로, 충전 만땅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지난해는 잊고, 인생의 날은 여백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본이 되는 새해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15:4).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다음 세대에 찾아오신 목사님



지난 12월 27일, 노량진교육관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부부들의 공동체인 청·장년부 송년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초석 목사님의 감작 방문으로 예배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시 편집실을 방문하셨다가 우연히 청년부에서 진행 중이던 플리마켓(바자회)과 청·장년부 송년예배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플리마켓과 송년모임을 수차례나 오가시며, 한가득 구입하신 간식과 선물을 어린 아이들과 젊은 가정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열렬 가득 합박웃음을

알고 보니 목사님께서는 영상편집을 위해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들의 순수함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시고, 그들이 이끌어갈 다음 시대를 향해 마음을 여신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여러 차례 아이들에게 선물과 먹거리를 가득 나누어 주시던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행거주고 싶은 목자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소성전 안에는 웃음과 감사가 가득 넘쳐흘렀고요.

훗날, 이 아이들이 이날을 기억하게 된다면, 목사님께서 건네주신 것이 단순한 작은 선물이 아니라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세상을 이겨낼 분명한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품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청장년부 역시 다음 세대를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작은 손들을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양육할 때, 다음 세대 부흥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인명 집사